

우리는 가족이란 이름의 특별한 도반

일터신행, 그 속에 '특별한' 도반이 있다. 직장에서 불심을 키우는 불자가족이 바로 그들.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에게 '신행의 거울'이 되어 주고 있다. 직장불자회에서는 핵심 일꾼, 집에서는 가족신행공동체를 일구는 일터불자들이, 이들은 '가족'이 '법우애'의 또 다른 말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떻게 신행활동을 하고 있을까? 2월 10일, 이들 가족의 불교사랑이 아기를 들여다봤다.



경찰관 이승석 부부 | 지하철법우회
가수 공미영 부부 | 심길섭·재창 부자



각자의 일터에서 열심히 수행하고 포교하는 이승석(왼쪽)·공미영 부부(사진 위) 심길섭(왼쪽)·재창 부자. 서울시 지하철공사 법우회의 '터줏대감'들이다.

부전자전·부창부수

'법우애'로 통하죠

이승석(38·청담)·공미영(34·연화) 부부. 남편 이 씨는 경찰관이고, 부인은 가수다. 이승석 씨는 서울지방경찰청 불교회 감사 맡은 지 2년째고, 아내 공미영 씨는 '새내기' 대한불자가수회원이다. 결혼은 올 해 9년 차. 이제는 눈빛만 봐도 속마음을 아는 '부부도반'이다. 불교와의 인연은 기독교 신자였던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교회 학생회장도 맡았고 성경퀴즈대회에서 우승까지 했다. 공씨도 교회 찬송가 반장으로 음악에 취해 학생시절을 보냈다. 그러던 이들 부부는 갑자기 소중한 사람의 죽음을 목도하면서 불교로 돌아왔다. 이후 이 씨는 1989년 경찰에 투신하면서 공 씨는 불자가수회에 몸을 담고면서, 각각의 일터에서 신행의 깊이를 더해오고 있다. 심길섭(69·각원)·재창(43·금산) 부

이 통했었어요." 남편 이승석 씨의 말이다. 이들 부부는 각자의 일터에 '젊은 바람'도 일으켰다. 남편은 1994년 경찰청 불교회 활동 시절에 수목화, 다도회, 찬불가 경연 등의 문화법회를 열어 회원들의 참여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냈다. 아내도 이어 뒤지지 않았다. 2002년 대한불자가수회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청년층을 위한 찬불가 보급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성북동 길상사 합창단을 지도하는 것도, 경구를 노랫말로 담아 음반을 내려고 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일터에서 신행활동을 해온 것은 엄청난 인연 복 때문인 것 같아요. 마음을 하나로 모아 같이 손잡고 보살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니 말이예요." 아내 공 씨가 힘주어 말한다.

심 부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아버지와 아들이 일터에 '가족 신행' 붐을 일으켰다. 동료 중심의 모임 운영을 회원들의 아내, 남편, 아들, 딸들이 참여하는 법우회로 탈바꿈시켰다.

언제 어디서나 '한마음' 과시 밀어주고 끌어주는 호법신장 화목한 가정·즐거운 직장 일귀

자. 서울시지하철공사 법우회 도반이다. 아버지 심 씨는 지난 1991년 법우회 창립을 주도해 초대회장을 역임했고, 이들은 현재 총무부장을 맡고 있다. 시ết말로 대를 이어 법우회에 충성(?)하고 있다. 아버지는 법우회 발전에 토대를 닦았고, 아들은 그 위에서 일터신행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같은 직장에서 피보다 더 진한 법우애를 나눈 이유는 뭘까. 이들 부자는 불교에서 살아가는 이치를 배웠다고 말한다. 아버지는 부처님 닦기를 평생의 서원으로 삼았고, 아들은 그런 아버지를 닦으려 했다. 41년 철도인생이 그랬고, 아들이 1986년 서울 지하철공사에 입사한 이유가 그랬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이 씨 부부한테 딱 들어맞는다. 일터불자회에 대한 사랑도 똑 같다. 청년포교에 대한 열정은 더 대단하다. 남편은 전·의경 포교에, 아내는 군 포교에 헌신하고 있다. "처음에는 서로 몰랐어요. 아내가 전방 GOP, 논산훈련소 등의 군부대를 돌며 음성 공양을 하는 지를요. 짐사림도 제가 전·의경 포교활동을 하는지 몰랐죠. 가끔 청년포교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했지만, 이렇게 말

했다. 창립 초기부터 지하철 플랫폼에서 떡을 나눠주며 회원을 모집했고, 정기적으로 '철도 무사고 기원 및 여객 자살자 천도 특별법회'도 마련했다. "회원들의 법우회 활동은 한계가 있었어요. 회원들은 바쁜 업무로 법회 참석도 힘들었죠. 고민 끝에 우리 부자가 내린 결론이 바로 가족신행운동이었어요. 항상 사고 위험을 걱정하는 회원과 가족들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모아지더군요." 아버지 심길섭 씨가 이렇게 말한다. 이런 심 부자의 신행 운동은 1993년에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사 내에 자체 법당을 개설하고, 최근에는 법요집 <신수봉행(信受奉行)>을 발간해 한 원동력이 됐다. "아버지의 열광만 봐도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다 알아요. 그야말로 법우회 일이건 집안건 금방 공감대가 형성돼요. 법우님들이 '참으로 복도 많은 부자(富者)'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서로에게 신행의 호법신장이 되어주니 너무도 행복해요." 아들 심 씨가 환한 미소를 짓는다. 글=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사진=박재원 기자 jwpark@buddhapia.com

우리불자회는요

동두천시 공무원불자모임 '삼보회'

'부처님과 가르침, 그리고 거룩한 사부대중에 귀의합니다.' 불가의 세 가지 보살인 '삼보'. 우리 동두천시청 삼보회의 창립 정성입니다. 지난 1997년 창립한 뒤, 지금까지 공무원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실천해왔습니다. 또 공직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고, 지역불교 발전에 일익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삼보회가 동두천 지역의 유일한 직장불교 모임이라는 사실만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해

일연사 주지 적연 스님이 직접 설명을 해 주, 한국전통불교문화를 한 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정발로 소중한 시간들이지요. 그간 순례한 사람만 20곳이 넘습니다. 경기 봉선사, 합천 해인사, 양산 통도사, 김천 직지사, 경주 불국사, 대구 동화사, 순천 송광사, 김제 금산사 등이 립만 들어도 엉덩이가 들썩거리는 명산대찰입니다.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지역 사찰과의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매

꾸준한 정기법회가 성공 비결

관내 사찰 순례하며 돈독한 '정' 쌓아



경기도 동두천시청 삼보회원들이 지난해 여름 경주 불국사 성지순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왔다고 자부합니다.

첫 출발은 이랬습니다. 동두천 일연사에서 동두천시사암연합회 스님들을 모시고, 창립기념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당시 동참했던 28명의 회원 얼굴에 가득찬 환희심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참으로 벅찬 순간이었습니다. 이후 우리 삼보회는 무엇보다도 정기법회를 꾸준히 열었습니다. 매월 한 차례 재적사찰인 보문사에서 지도법사 중화사 주지 용하 스님을 모시어 감로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불자가 알아야 할 기초교리에서부터 사찰 기본예절, 자원봉사 활동법에 이르기까지 그야말로 짚고 배우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불자들이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수행법은 일상생활의 지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년 분기별로 전국 명산대찰을 찾아 불교문화의 정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월 관내 사찰을 돌아가며 순례법회를 열었고, 2003년에는 사암연합회와 시청 소회의실에서 합동법회를 봉행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역 스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이 이어졌고, 우리 삼보회 활동도 더욱 윤택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삼보회는 할 일이 많습니다. 정기법회의 주기를 한 달에 두 차례로 줄이고, 자원봉사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지주 모여 법에 대해 논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처럼 법음도 함께 나누고, 나누는 보살행도 실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올 해부터는 덕망 있는 큰 스님들과 불교학 전공 교수님들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회원들의 불교공부 기회를 늘려주기 위해 경전 독송 소모임 결성도 추진할 생각입니다. ■이숙표 총무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2004년도 1학기(11기생)

불교종무행정 고위자 과정생 모집

1. 수업시간: 불기 2548년(2004년) 3월 2일부터 ~ 6월 17일까지(15주)
2. 강의요일 및 시간: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30분 ~ 5시까지(3시간 30분)
3. 모집인원: 40명 4. 수 강 료: 40만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016-24-0629-134 이우병)
5. 접수기간: 2월 11일부터 ~ 3월 2일까지 ※ 전화접수 가능
6. 문 의 처: 서울 중로구 명륜동 2가 41-4 한성대학교 대학로 캠퍼스 사회교육원 교학과 (지하철 4호선 혜화역 하차 4번출구, 전방 150m) 교학과 전화: 02)743-0728, 0727 / FAX: 02)744-8480

※ 2년 전과제 수료생에게는 한성대학교 총장, 1학기 과정 수료생에게는 사회교육원 원장 명의의 종무행정 고위자과정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 종무행정 고위자 과정 개설과목 -

교 육 내 용	요일 및 시간	교육기간	교 수 진
컴퓨터 교육·문서작성 기초부터 문서작성과 인터넷 활용까지 (컴퓨터 1일 1대 실기위주)	매주 목요일 1교시 오후 1시 30분 ~ 3시	2학기 15주 30시간	현안상 총장 이우병 원장 황진수 교수 최홍식 교수 김의식 교수
성명학(작명법)·명리학·풍수지리학·불교미술 불교와 사회와의 연관성 강의, 승려복지, 불교미술, 임상스포츠마사지, 발마사지, 향기치료 성명학·명리학·풍수지리학 등 사회계층관련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A)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김세종 교수 이용준 강사 이진복 강사 최미선 강사 강희종 강사 채지현 강사 류한영 강사
종무행정과 정보·재산관리 종무행정의 이론과 실제, 부동산관련법 해설, 금융자산의 활용, 정보관리 등 심층강의	매주 목요일 2교시(B) 오후 3시 20분 ~ 4시 50분	2학기 15주 15시간	(※ 과정에 따라 강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성대학교 사회교육원

http://www.hansung.ac.kr/~socioedu 02)743-0727~9

태(胎)중 아기(낙태, 유산) 영가 49재 천도재

☎ 약천사 양력 3월 8일 ☎

태(胎)중 아기 지장보살님을 봉안하고 성심껏 기도하여 아기영가가 편안하고 업장소멸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교에서는 낙태를 명백한 살인이라고 규정합니다. 부모의 인연으로 만나 생겨난 아기인데도 별다른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아기를 지워버리는 일이 너무나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태중아기는 부모가 낙태를 생각하는 순간부터 불안과 긴장으로 몸을 움츠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인답니다. 낙태한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부모가 진실된 마음으로 참회하고 참회한다면 스스로 지은 악연의 고리도 끊어져 새로운 인연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찾아드는 인연을 거부하고 '나'의 편리를 위해 '나'에게 의탁한 생명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중아기는 엄연한 생명이고, 그 생명을 끊은 낙태의 결과는 생각 이상으로 무겁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처럼 않았던 자신의 결정으로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어간 태중아기를 위해 진심을 다한 참회를 하여야 합니다.



태중아기 지장보살님

- 일 시: 2004년 3월 8일 월요일 오전 11시 (음, 2월 18일)
- 장 소: 약천사 법당
- 기도입재(초재): 양력 3월 8일 (음, 2월 18일)
- 기도회향(막재): 양력 4월 19일 (음, 3월 1일)
- 기도 동참비: 태중아기 지장보살 봉안비 30만원, 49재 천도재 회당 별도
※ 위패비, 아가옷: 무료
- 준 비 물: 사탕, 과자, 분유(우유) 등
- 7계 회향에는 태중아기 지장보살 관육을 합니다. (예배적삼, 양말, 신발, 장갑 등 준비)
- 입금계좌: 농협 075-02-390890 | 국민 353-24-0119-724 | 예금주: 이순수

태중아기 영가 천도 방법

- 1) 성심을 다해 참회하여야 합니다.
- 2) 49재를 올려서 천도에 주어야 합니다.
- 3) 지장경을 독송에 주어야 합니다.
- 4) 지장보살상을 사들 시는게 좋습니다.
- 5) 부처님을 조상에 드리면 더욱 좋습니다.
- 6) 태중아기 영가를 위해 등을 얹습니다.
- 7) 대승보살계를 받게 하시면 좋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전화주시면 직접 안내하여 드립니다. 서울 노원구 중계 4층 450번지 삼정빌딩 4층 약천사 자문 할당 02)3391-8523 / 011-9002-8523